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23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현미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6:1-13	인 도 자
설 교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92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안미나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9월 16일 제59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 왕을 대신해 새롭게 기름 부으실 왕을 찾아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서게 합니다. 그 때 사무엘은 첫 눈에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과 이새의 생각에 그리고 엘리압 스스로도 생각하길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재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봅니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흠이나 티를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마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이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 사람됨을 면밀히 관찰해온 아비가 추천하는 사람 일곱 아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성경의 은유입니다. 아비도 자식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안목이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부을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보여준 일곱의 아들을 다 보시고, 합당치 않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무엘의 질문에서 이새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습니다. 아비가 '여덟 아들이 있는데 일곱은 기름부음 만하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멋대로 따로 세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막내 다윗은 양이나 칠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한하여 구분하는 일이 하나님 맘에 도저히 합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마음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재단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느냐.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 네가 포기한 사람, 네가 무시한 사람, 네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를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느냐?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평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평가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으며 사는 것 삶을 사는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또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으면 무엇합니까? 정작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일곱 아들이 아닌 들에서 양을 치는 말째라 불리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사울 처럼 버림 바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왕으로 떠받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려고도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에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으니까, 연연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늘 어긋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만을 보면 사람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선택은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10월부터 새벽기도회와 가정교회(속회)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주부터 2주에 걸쳐 가정교회 인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3. **10월 15일(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선교회 서북부지방 교역자회의가 우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4. **안찬호 성도(안미나 집사) 가정의 사업체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오후 8시 이전감사예배가 사업체에서 있습니다.**
5. **최정아 성도 사업체와 교회출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친교식사 후에 박선영 집사를 위한 Baby Shower가 있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50.00	
감사헌금:	$171.00	
주일헌금:	$25.00	
특별헌금:	$0.00	**합 계: $746.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